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무엘상 3:3-10, 19 제2독서 코린토 1 6: 13-15, 17-20 복음 요한 1: 35-42

◎말씀 < “와서 보시오” >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가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우리 아버지’ 이신 하느님을 “와서 보라” 고 증언하며 사는 시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안드레아는 “와서 보아라” (요한 1,39) 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받고 그분이 계신 곳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안드레아는 그분과 함께 머물며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 의 사랑으로 흠뻑 젖은 그는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 갑니다. 복음의 기쁨을 맛보았으니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TV2,000에서 주님의 기도를 주제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포짜라는 젊은 신부가 몇 년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 11월 책으로 출간 되었고, 로마 주재 교황청 대사 (2003~2006)였던 성 염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라는 제목으로 번역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머리글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은 ‘아버지’ 이신데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느님인 동시에 너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우리 아버지, 6-7쪽).

교우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 이십니다. 하여 저마다 드리는 기도가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고여 있지 않고 이웃을 향해 흘러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안으로 굽어 자신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의 기도와 사랑 안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로막힌 강물은 두터운 녹조를 이불처럼 껴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죽어가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무대에서 배제된 가여운 사람들은 영문 모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삭풍한설이 몰아쳤던 세상에 촛불이 밝혀지고 다시 희망을 노래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들의 눈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를 “와서 보라” 는 우리들의 증언과 초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월 16일(화)	연중 제2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520.00 \$ 1,349.00
1월 17일(수)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오전 7시 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17.00 \$ 87.00
1월 18일(목)	연중 제2주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성 물 방 원캠페인	\$ 389.00 \$ 350.00
1월 19일(금)	연중 제2주간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0.00 \$ 0.00
1월 20일(토)	연중 제2주간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합 계	\$ 4,812.00
1월 21일(일)	연중 제3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15명 성인: 330명
교무금봉헌자	이종만, 이수동, 임창순(1-2월) 김선식, 김형일, 김규철, 윤재경, 이상인, 김병길, 구준모, 이재성, 허형, 허용희, 이상기, 지봉원, 김병준, 박병호, 이원근, 박병수, 김영숙(1월) 김진태(11-12월) 홍명숙(9-12월) 김상규(9-10월) 지영욱(12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유래와 의미

교황 바오로 6세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가리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를 맞이하게 해주신 거룩한 어머니께 드리는 특별한 존엄성을 찬미하는 날이라 밝혔다.

새해의 처음을 여는 1월 1일은 전례력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고 ‘구원의 협력자’로서의 마리아를 공경하는 의무 대축일이다. 로마가톨릭교회 전례에서 가장 오래된 마리아 축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축일은 3세기 이전부터 형성된 대중 신심의 하나인 성모 공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성모 공경 신심의 확대 발전은 에페소공의회(431년)를 통해 성모께 ‘테오토코스’(하느님을 낳으신 분,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부여되기에 이른다.

에페소공의회 개최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죽음(천상 탄생) 축일’을 8월 15일에 지냈는데, 그렇게 볼 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공경은 8월 15일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에페소공의회 후 성모 신심이 촉진되고 마리아 축일 제정이 시작되면서 하느님 어머니 축일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여러 동방교회에 확산됐다. 특히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성탄 축일 신비와 연계되면서 일부 동방교회에서는 예수 성탄 대축일 다음날인 12월 26일에 ‘하느님의 어머니 축하 축일’을 지냈다고 한다.

서방교회에서는 7세기부터 이 축일을 1월 1일에 지냈다. 로마교회가 그 처음으로 전해지며 ‘성모 천상 탄생 축일’로 1월 1일을 기념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성모승천대축일(8월 15일)과 성모성탄축일(9월 8일)이 도입되면서 성모 공경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트리엔트공의회 이후 ‘주님의 탄생(성탄) 팔일 축제’가 생기면서 축일의

뜻이 흐려지고 그로인해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성모 축일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약화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69년 ‘하느님의 어머니’를 강조하고 기념하게 되면서 1월 1일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정됐다. 특별히 ‘로마에서 1월 1일에 지내던 성 마리아 천상탄생(Natale Sanctae Mariae)’의 의미가 다시 부활된 것이다.

이같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로마에서 지내던 성모대축일 본래의 뜻을 회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로 부각된다. 그리고 이날은 아기 예수 탄생의 연장인 팔일 축제로서 성모의 역할을 칭송하는 성모 공경 취지를 담고 있는 것과 함께 새해에 대한 축복과 평화의 기원, 주님의 할례 등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내오던 축일 내용들을 그 이면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1967년, 1월 1일이 평화의 날로 정해지면서 이 축일은 구원의 문을 여는 성모에게 새해 첫날을 봉헌한다는 뜻이 더해졌다. 바오로 6세는 “이날은 갓 태어나신 평화의 왕을 경배하고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다시 한 번 들으며 평화의 모후를 통해 하느님께 평화의 고귀한 선물을 청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제정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황애다/원정은. 카타리나/성나순. 안나 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추소연. 세실리아/염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 황순이. 마리아/최이주. 베아따/이규청. 제노비아 신용경. 그레고리오/염모니카/배미성. 오틸리아 박모란. 글라라/김광진. 요한/원헤리나. 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율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생	이영숙. 데레사의 영육간 건강	장경숙. 로사리아	생		

간  
장  
중  
지

◎ “와서 보아라” ◎  
 길에서 어느 분이 “와서보아라”  
 그 날 가서 보았으면 그분 만났고  
 그 날 가서 보았으면 그분 따랐고  
 그 날 가서 보았으면 내가 죽었을 걸  
 (조창환 토마스데아퀴노. 시인/최창원 니콜라오. 화가)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서은미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916)860-3873</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b>1.2.3 Auto Body정비</b>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b>JIMMY KIM 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b>최병엽공인회계사</b>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Bad Credit?</b> Call For Free Credit Titan Credit 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 Esq (916)709-7777 <a href="mailto:rarry@titancredit.com">rarry@titancredit.com</a></p>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a href="http://samuraisushisac.com">samuraisushisac.com</a></p>	<p><b>Law Office of Daniel S. Lee</b>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 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막달레나) <a href="mailto:danieelaw@gmail.com">danieelaw@gmail.com</a> (916) 922-0107</p>	<p><b>Bradshaw 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신세계여행사</b>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p><b>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b>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b>에어컨 수리</b>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올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 Citr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b>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공동체 소식(본당의 쇄신;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1구역(FE).2구역(FO).3구역(PC).4구역(NH).5구역(O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예비신자 환영식  
일시:2월8일(목)오후8시.소화데레사방  
미사전에 전교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대상자 봉헌서는 미사중에 봉헌해주세요.  
적극적인 활동과 인도를 바랍니다(구역별2명)
2. 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1월21일(일)오후2시30분 출발  
참여단체;회장단.공소미사에 함께 해주세요.
3. 모임안내  
꼬미시움;21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4. 봉성체 및 환자방문  
일시:1월18일(목)오전9시30분.부제님  
박성진.율리아자매님께 미리 신청해주세요.
5.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6일(금)오후7시30분.성당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6. 사목회 정기총회  
일시;27일(토)오전10시.엘리사벳방  
참석대상;사목임원.역대회장.구역장  
레지오단장.단체장
7. Walk For Life(천주교 낙태반대운동)  
일시;27일(토)오전11시.샌프란시스코.  
문의:윤재경.알베르토(꼬미시움단장)
8. 초 축복식  
일시;2월4일(일)교중미사중  
일년동안 제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신청해  
주세요(신청;주모니카)

9. 성인복사단 모집 및 교육안내  
일시;2월3일(토)오후8시.성당  
문의:송돈희.요셉(916-201-9859)
10. 교무금 봉헌  
지난해 교무금은 어려우시더라도 완납해주시고  
교무금 봉투가 없거나 아직 등록하지않은분은  
사무실로 연락해주세요.
11. 매일미사 신청(2018년용);주 모니카(1년\$45)
12. 광고비 납부해주세요(2018년).  
달력 및 주보광고비;일년에 각 \$150입니다.
13. Donation Statement  
2017년 텍스리턴 관련 Donation Statement  
(교무금포함).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세요
14. 감사합니다.  
도네이션:김기상(HP모니터)

<주일/한글학교 소식>

- 주일/한글학교 학부모 총회  
일시:14일(일)오전11시15분.친교실
- NCKCY Summer Camp 안내  
일시:7월25(수)-29일(일)  
장소:Capital Mountain Camp,Fairfax.CA  
문의:김형일.안드레아
- 주일학교 견진교리;둘.네째일 오전10시.사무실  
주일/한글학교(문의);김형일.안드레아

- ◎식사봉사(이번주);6구역      보조;이서향
- 식사봉사(다음주);            보조;
- ◎원캠페인;박종윤(\$100)강석만(\$150)
- ◎사제관건립기금;없음            합계;\$232,156
- 묵주기도;815단                합계;465,209단

화답송



주님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전례봉사	연중제2주일(1월14일)	연중제3주일(1월21일)	연중제4주일(1월28일)	연중제5주일(2월4일)
해설	최금주.요안나	김은선.제노베파	문선영.바실리아	김선영.플로라
제1독서	구준모.요한	김민규.다미아노	안병훈.스테파노	고원석.바오로
제2독서	김준희.키아라	송봉금.다미아나	안혜숙.세실리아	고공자.벨라멧다
복사	김규철.원영일	송돈희.윤여훈	김규철.최준우	이상인.김재열
봉헌/기도/청소	5-6구역	5-6구역	5-6구역	5-6구역
헌금위원	고공자.임혜숙	송돈희.임상일	나송희.류정임	안강순.고원석